

WRITER



민태윤 교육 전문가  
『국어 1등급의 비밀』 저자  
前 교육과정평가원 수능국어 출제 검토위원

# 공부 잘하고 있나요?

공부(工夫)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을 배우고 익힘. 유의어는 글공부, 면학, 수학(修學)이다. 이는 학습(學習)에 치중된 정의다. 그런데 공부는 이렇게 단순한 학습에 경도된 정의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라는 말이 학습 외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단순한 학습 행위라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만을 위한 학습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 자녀의 공부 가이드는 일방적 학습 강요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자녀는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ㄱㄱ

엄마, 아빠는 꿈을 이루거나 하고 싶은 일을 달성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다. 내 꿈은 의사인데 엄마 아빠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의사를 포기했다.

ㄴㄴ

국문학과에 진학한 대학생의 초등학교 때 일기다. 이 일기는 잘못된 공부 인식이 자녀의 꿈을 포기하게 한 사례다. 의사가 되기 위해 수학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학적 역량이 의사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단순하고 편협된 공부 방향 제시가 자녀의 꿈을 위축시켰다는 점이 문제다.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 자질이 수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보다 열린 시각으로 조언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수학에 자신 없어 하는 아이를 위한 전략적 고민과 수학을 잘 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학생의 어릴 적 꿈을 실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꿈을 이루게 하는 공부는 단지 특정 과목만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성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편협하고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열린 시각에서 공부의 의미를 재인식할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한 훌륭한 공부 안내자가 될 수 있다.